

〈성경 칼럼 : 요한복음 1 장〉

그동안 덮어 두었던 성경을 오랜만에 폈다. 물론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저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읽기는 하지만 깊은 묵상은 없었던 뜻이다. 그리고 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묵상해 본다. 나의 성경칼럼이 다시 시작됐다. 좀더 영혼 깊은속에 스며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한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시작부터 거침 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한다. (1:1) 도대체 이런 주장이 한계적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주장한다. (1:14) 이 황당한 주장을 사람들이 정말 이해 할 수 있을까? 난 사실 요한의 이런 황당한 선언을 처음 읽었을때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참 미련한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 즈음 이미 젊은 시절이 다 지난 30대 후반이었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던졌진 질문은 어떻게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었을까? 에 집중했었다. 결과적으로 볼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사람의 모양) 을 입으시고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은 사실 아닌가? 그러나 메달리다 결국엔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증명 할 수 있다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화영화에나 나올 법한 캐릭터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그랬을뻔 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터리로 만들곤 한다)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벌어 질 수 있을까? 를 파고드는 것보다 그것이 (말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렇다면 ‘말씀’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정해 놓고 ‘말씀’ (Logos) 이라는 대담한 헬라적 표현의 수단을 사용했다. 성경의 어느 누구도 이렇게 대담하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6-8, 골로새서 2:6 에서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말이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 자들) 정직히 말해서 ‘말씀’ 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새롭게 충격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저 그러려니 한다. ‘말씀’ 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온 것도 부정 할수가 없다. 내 판단이 틀렸을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강단에서 목사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생애를 통해 전달되는 사실적 이야기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다 라는 말로 달리 표현 되는 것으로 인식 되어 왔다. 이런 견해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교회적 권위주의와 성직 권위주의에 깊이 빠져 허우적대는 성직자들에게는 강단이야말로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말씀이라는 포장으로 적당히 유린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아니라고 반박 할수도 있겠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때 그 분명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국한되어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 참된 의미는 요한이 다음장에 기록한 '가나 혼인잔치' 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곧바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는 말씀으로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포도주를 해결 하셨다. (2:7)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게한 기적을 기록한 의도는 '말씀' 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는 시도였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종종 인간은 말씀으로 그리 되기 바라지만.. 죽은 나사로도..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병자도.. 모두 말씀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오늘날 강단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 파렴치한 발상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닐터 이제는 듣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도 분별 할수있었으면 한다. (모든 강단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현 기독교의 문제는 '말씀' 의 의미를 바로 이해 되고 받아들여질때 해결되고 진정한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되어있다.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어떤 수사적 혹은 논술적 표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실 뿐이다.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육신이 되신 것이다. 아멘..!